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아동의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김 수 선




2013년 8월

아동의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송 재 홍
김 수 선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김수선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양 능 
위 원 김 종 우 
위 원 송 재 홍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3年 8月

The Predictive Effect of Child-Parent
Attachment and Self-control on School
Adjustment with Primary school children

Kim, Su Seon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Jae H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ug. 2013

[국문초록]

아동의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 수 선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송재홍

본 연구는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와 영향을 살펴보고, 자기통제력이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서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내에서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 부모 교육이나 학교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애착,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세 변인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 연구문제 3)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 연구문제 4)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10-20세 대상을 제작한 부모애착 정도를 수정한 개정본을 옥정(1998)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초등학생의 수준에 수정하여 사용한 윤소영(2001)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경님(2000)이 개발한 학령기 아동용 자기통제

척도, 김용래(2000)가 제작한 것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맞게 이점순(2006)이 수정 보완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2곳의 5, 6학년 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모애착,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둘째, 부모애착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애착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자기통제력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통제력의 하위요인 중 사려숙고, 교사관련 통제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려숙고, 교사관련 통제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넷째,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 자기통제력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부모애착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아동의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은 학교생활적응과 관계가 있으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애착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교육과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부모애착,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의.....	3
가. 학교생활적응.....	3
나. 부모애착.....	4
다. 자기통제력.....	4
II. 이론적 배경	5
1. 학교생활적응.....	5
가. 학교생활적응의 정의.....	5
나.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6
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2. 부모애착.....	9
가. 부모애착의 정의.....	9
나. 부모애착의 발달.....	10
다. 부모애착의 이론적 관점.....	11
라.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13
3. 자기통제력.....	14
가. 자기통제력의 정의.....	14
나. 자기통제력의 하위요인.....	15

다. 자기통제력의 이론적 관점.....	17
라.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19
4. 부모애착,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20
Ⅲ. 연구방법	22
1. 연구대상.....	22
2. 측정도구.....	23
가. 부모애착 척도.....	23
나. 자기통제력 척도.....	24
다. 학교생활적응 척도.....	25
3. 자료수집 절차.....	26
4. 자료 분석방법.....	26
Ⅳ. 연구결과	28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28
가. 기술통계.....	28
나. 상관관계.....	29
2.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31
가.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31
나.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32
3.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33
Ⅴ. 논의 및 제언	35
1. 논의.....	35

2. 제언	37
참고문헌	39
Abstract	46
부 록	49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2
<표 III-2> 부모애착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4
<표 III-3> 자기통제력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5
<표 III-4>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6
<표 IV-1> 가족형태에 따른 기술통계 및 전체 기술통계.....	28
<표 IV-2> 부모애착,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30
<표 IV-3>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애착의 다중회귀분석결과.....	31
<표 IV-4>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다중회귀분석결과.....	32
<표 IV-5>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3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령기 아동은 새로운 학교환경과 접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가정환경을 기반으로 적응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아동이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닌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단체 생활의 규칙을 익히게 하고 바람직한 자아개념, 사회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미래에 건강한 청소년,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는 의미이다(유병선, 2008).

최근 우리사회는 무리한 조기교육과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상황에 놓이게 되어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적응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학교현장에서는 폭력, 집단 따돌림 등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집단 내에서 소외되고 위축되어 있거나 학습의 규칙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아동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발표를 하지 않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나서기를 꺼려하며 학습에 의욕이 없고 자신감이 결여된 아동도 많이 있다.

아동은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며 이는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 및 성인기에서의 건강한 사회적응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많은 선행연구들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 관계를 밝히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부모와의 애착이다. 부모와의 애착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관심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애착은 삶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유용한 예언 변인이다(백정빈, 2008). 또한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아동들의 학업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자존

감이 높고 학교생활과 사회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세화, 2003).

아동에게 최초의 사회화 인자이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사회적 관계의 발달이 최초의 애착형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부모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속하는 문화에서 요구하는 행동 규범, 가치, 도덕 등을 획득하고 적절한 자기통제력을 발달시킨다. 오늘날과 같은 성취지향적인 사회에서는 현재의 즉각적인 욕구나 충동을 자제하고 성취를 위하여 인내하는 능력은 아동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최근 아동의 적응 및 학업 성취를 비롯한 사회·정의적 발달에 가장 필요한 능력의 하나로 자기통제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송명자, 1995). 자기통제력이 높은 아동은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는 충동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사려 깊게 행동함으로써 높은 학업성취와 원만한 또래관계를 보이며(이경님, 2004),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동은 인지적 과제해결에 산만하여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교사 및 또래관계에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많은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희, 김경연, 1999).

위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이 부모와 형성한 안정된 애착은 아동의 자기통제력 형성에 의미 있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애착, 자기통제력과 같은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서로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찾아보고 그 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동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에 관련된 변인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이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자기통제력이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서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내에서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 부모 교육이나 학교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제주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애착,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의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매개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부모애착,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세 변인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2)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3)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4)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은 학교라는 사회적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환경 안에서 잘 조화되도록 수용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함께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태도를 보이고, 학교활동에 참여하며 만족감을 느끼며, 학교규칙을 올바르게 잘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은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활동적응으로 구성된다.¹⁾

1) 김용래(2000)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으로 하위요인이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용을 고려한 결과, 학교생활적응과 하위요인인 학교생활적응과의 구분을 위해 학교생활적응을 학교활동적응으로 정의하였다.

나.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자녀와 부모사이에 형성된 정서적 유대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에게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행동적인 면이 포함되는 긍정적 부모-자녀관계를 의미한다(최미경, 2000).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로,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자신의 판단을 믿어주며, 부모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신뢰로운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부모님과 자신의 감정, 의견을 존중하며 원활히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집이나 학교에서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나 좌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애착의 하위요인은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으로 구성된다.

다.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억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정옥분, 2004).

본 연구에서는 어떤 개인이 특별한 갈등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충동을 억제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통제력의 하위요인은 사려숙고, 과제인내, 유혹저항, 정서통제, 친구관련 통제, 교사관련 통제로 구성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생활적응

가. 학교생활적응의 정의

인간이 태어나서 유아기까지 생활 및 활동의 영역이 주로 가정이지만 아동기에 이르러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생활의 장이 학교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된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을 가정, 학교, 사회로 볼 때 그 중 학교에서 아동이 받는 교육적 영향을 통틀어 학교생활이라 한다. 아동들은 학교에서 교과활동, 특별활동 및 기타 학교행사 등을 통하여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여기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만족감을 느끼고, 교사 및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학교생활적응이 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진미화, 2007).

문은식(2002)은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학교 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청소년의 외현적·내현적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안영복(1984)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람직하게 수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과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김용래(2000)는 학교적응이란 ‘학습자가 학교상황, 즉, 학교수업, 학교생활, 학교 내의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서 학습자의 요구를 학교상황 내의 제반 요구에 균형

있게 조절하고,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학교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따라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라고 개념화하였고, 이미라(2000)는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들이 학교의 총체적인 영향 즉, 학생, 교사, 학급생활 등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로 학교생활에 적응시키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서는 학교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한 사회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은 학교라는 사회적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환경 안에서 잘 조화되도록 수용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함께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태도를 보이고, 학교활동에 참여하며 만족감을 느끼며, 학교규칙을 올바르게 잘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나.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하위요인에 따라 관점도 다양하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환경에서의 학습참여도, 대인관계영역, 학교에 대한 태도 등 학교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교육적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황경미(1998)는 아동의 학교에 대한 지각, 학교·학급에서의 활동성, 학습관련 태도 및 행동으로, 김지혜(2006)는 수업참여도,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문제행동으로, 문은식(2002)은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의적 적응을 하위요인을 보고하였다. 이미라(2007)는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을 학교생활 영역의 하위영역으로 제안하였고, 이규미(2005)는 학교생활 지수나 적응지수가 곧 학교생활적응의 증거라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학교생활적응을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 학교교사, 학교수업, 학교친구, 학교활동 등 5가지 이 영역들이 학습자가 학교에서 대처하고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김용래(2000)의 학교적응에 관한 개념을 수용하여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들을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활동적응으로 구분하였다.

1)학교환경적응 : 학습자가 학교환경을 바르게 수용해서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학교환경에서 수반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해 가는 정도

2)학교교사적응 : 학습자가 학교 교사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교사에게 적절하게 조절하며, 교사와의 관계에서 수반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해가는 인간관계의 정도

3)학교수업적응 : 학습자가 학교의 수업상황에서 일어나는 제반 일들을 바르게 수용하고 수업시간에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유발하는 개인의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처하고 있는 정도

4)학교친구적응 : 학습자가 학교 친구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제반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친구와의 사이에서 유발하는 각종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처해가는 정도

5)학교활동적응 : 학습자들의 학교생활은 교내의 규칙과 질서, 각종행사, 시설물의 활용, 준비물의 지참, 교내 홍보와 게시물의 확인 등이 주요사항이며, 이들 사항을 중심으로 한 학교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르게 파악하면서 학습자 개인에게 유발하는 여러 스트레스를 잘 대처해가는 정도

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함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인관계가 부모관계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는 시기인 초등 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생활적응은 미래에 건강한 청소년·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애착(윤정희, 2002; 진미화, 2007), 부모와의 의사소통(이경남, 2003), 사회적지지(이수경, 2004; 조유진, 한지숙, 2010)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현(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이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고 보았고, 이정윤, 이경아(2004)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아동중심적, 애정적, 민주적이라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고 보았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아동의 자기정체감(이현림, 천미숙, 2003), 자기조절능력(이지연, 백정빈, 2008), 자아탄력성(구자은, 2000)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주경, 정문자(1999)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동이나 성취, 동기, 적응 등 발달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인이라고 하였고, 김정화, 김언주(2006)는 높은 학습동기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배승희(1998)는 스트레스대처행동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능동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취하는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았으며, 또한 친화욕구와 양육욕구가 높은 집단의 아동이 학교생활적응도가 높다고 밝혔으며, 최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감정 조절능력, 수용능력, 통제력, 사회적 기술,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능력,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백미애, 2002; 윤영란, 2005).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동현(2006)은 낙관적인 학생이 일반적인 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교우관계와 학습과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동원하여 교우관계에 학습과제 등 그들이 직면한 과제를 풀어간다고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환경적 요인인 부모애착과 개인적 요인인 자기통제력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부모애착

가. 부모애착의 정의

인간 초기 발달의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인 애착은 Bowlby(1958)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영아와 어머니의 유대관계를 설명하며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이며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려는 행동 혹은 그 접근이 손상되었을 때 회복하려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이춘숙, 2006 재인용). 애착은 영아가 자신의 양육자인 부모와 가까이 있음으로써 안정감을 갖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서적인 결속을 의미하며 의존성과는 차별되는 개념이다. Ainsworth(1989)는 애착이란 특정애착대상과의 접촉과 근접하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로서,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안정된 성향을 가지며 영아는 애착대상과의 접촉과 근접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애착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Papalia와 Olds(1979)는 애착이란 모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되어 특별히 두 사람에게만 형성되는 능동적·애정적 상호작용적 관계라고 하며 두 사람간의 상호작용은 계속해서 서로의 결속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한다고 하였다(유병선, 2008 재인용).

애착 대상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때 안정애착이라고 할 수 있고, 애착 대상에 대해 강렬한 애정과 의존성, 거절에 대한 두려움, 과민성, 경계심 등의 혼합된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불안정 애착이라고 할 수 있다(이수하, 2005; Holmes, 1992 재인용). 애착은 영아와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이고 이로 인해 안정감을 취하며,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 안정성이 영아기 이후의 사교성, 정서적 기질, 독립성, 협력, 신뢰 등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영아기 초기에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면 유아기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이것은 타인과 관계 형성 시 신뢰감을 갖게 함으로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후 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전 생애에 걸쳐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Bowlby에 의하면 인간은 애착 대상과의 반복되는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자기, 타인,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지적 표상들을 발달시키는데 이를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 하였다.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형성된 자기-타인 표상은 자기와 세계에 대한 중요한 신념을 형성하고 이후의 사회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끌며 타인의 행동을 예측, 해석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개인은 애착대상의 행동을 해석 및 예측하게 되며 현재와 미래의 반응을 계획하게 되는데, 애착대상이 정서적으로 반응적이고 지지적임을 경험한 아동은 유능하고 사랑 받을 가치가 있는, 자신에 대한 실행 모형을 형성하게 되는 반면에, 애착대상으로부터 자주 거절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이 가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자신에 대한 실행모형을 발달시키게 된다(이수하, 2005; 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재인용). 즉, 형성된 내적작동모형은 일생을 거쳐 실행되는데 긍정적인 내적표상을 가진 아동은 건강한 경로를 밟아가고 부정적인 내적표상을 지닌 아동은 일탈된 경로를 밟게 되는 것이다(손현숙, 2008). 일단 형성된 애착은 새로운 상황에 부딪치면 내적실행모델의 중재를 통해 이미 갖고 있던 모델을 재조정하거나 수정하여 현실에 적응하게 되므로 애착은 지속성뿐만 아니라 변화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부모애착의 발달

애착의 발달은 출생에서 시작되어 인지적, 정서적 발달과 더불어 일련의 단계를 거쳐 발달하는데, 3세 이후 아동기말까지는 지향적인 동반자적 단계로 애착대상의 행동을 예측하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본 이해를 획득하여 융통성 있는 행동을 통해 행동을 조절하고 대상과 협조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아동기 후기인 학령기 아동의 애착의 특징은,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상호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또래와의 관계를 중요시 하고 그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얻게 된다(백경애, 1997). 또 아동기 후기는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발달적 전환기로 아동이 자신에 대한 독특성과 고유성을 인식하면서 부모-자녀 관계에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서 대립과 갈등을 경험

하면서도 부모의 이해와 지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원만한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부모와의 조력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적절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김영희, 2007).

애착연구 초기에는 영아와 양육자의 유대관계만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애착이 전 생애 동안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형성될 수 있는 정적인 유대로 인식되고 있으며(장휘숙, 1997), 애착 대상도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에게서 친구로, 또 애인과 배우자로 점차 바뀌어간다. 이처럼 생애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전 생애를 거쳐 지속되며,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까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 부모애착의 이론적 관점

애착의 정의와 함께 애착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크게 정신분석적 이론, 동물행동학 이론, 사회학습 이론, 인지발달 이론으로 살펴 볼 수 있다(최승연, 2007).

첫째, 정신분석적 이론에서는 애착은 한 개인의 전반적인 애착상태 및 특질로, 기본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일 뿐 아니라 생물학적 본능이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Freud는 유아에게 편안한 상태에서 젖을 먹여주고, 만족감을 주는 행동은 높은 애착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Erikson(1968)도 영아의 수유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일이 영아기의 안정된 애착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성장 후 아동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에 대해 느끼는 신뢰감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김영희, 2011 재인용).

둘째, 동물행동학적 이론에서는 애착을 진화론적 이론에 근거하여 주 양육자에 대한 유아의 애착행동은 유아의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고 불가피하게 진화하여 형성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동물생태학자들에 의하면 유아는 어머니와 계속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생득적 반응을 타고나며 어머니의 주의를 끌기 위해 여러 가지 생득적인 신호들을 표출한다. 성인 또한 유아의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생득적 능력이 있어 유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어머니와 영아가 서로 주고받는 호의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밀착된 애착이 형성된다고 하였다(최순영,

김수정, 2001).

셋째,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생후 초기의 주양육자인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통해 일차적인 욕구 충족과 이차적인 강화의 지위를 획득하여 어머니의 존재만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애착을 발달시킨다고 설명하면서 애착행동을 본능이라기보다는 학습된 행동으로 본다. 즉, 어머니가 유아에게 규칙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과 따뜻한 보살핌은 1차적 강화물로 유아의 즐거운 느낌이나 유쾌한 감각과 연합되고, 이러한 긍정적 결과에 대해 어머니 자체가 2차적 강화물이 되어 유아가 어머니에게 애착하게 된다는 것이다(최상진, 최순영, 1989).

넷째, 인지발달이론에서는 영아의 애착형성이 인지발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영아는 친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별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안정된 애착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애착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져도 어딘가 존재하여 다시 돌아올 것을 아는 대상항구성이 획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인지 이론가들에 의하면 낮가림이나 격리불안이 시작되는 것은 애착 대상과 다른 대상을 구별할 수 있을 때이며, 사라지는 시기는 대상항구성을 획득하고 난 후라고 보았다(이옥형, 1999). 또한 영아기의 애착은 영아가 성인과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지시하는 내적 작동모델로서 그 기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선상화, 2009).

다양한 분야에 걸쳐 Bowlby의 애착이론이 적용되는 것은 정신분석학적, 동물 행동학적, 발달심리학적, 사회인지학적인 관점들을 하나의 틀로 통합하여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Bowlby의 애착 이론이 정신분석학이나 사회학습이론과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 중 한 가지는 애착 형성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아동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애착은 상호교환적인 과정이며 그것은 한 개인의 평생을 통해서 지속되는 관계의 질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애착의 본질이 형태를 달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애착은 일생을 통해 지속성을 갖는다(Crockenberg, 1985; 김영화, 2011 재인용).

라.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전 생애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Bowlby의 애착 이론은 유아기의 부모와 형성된 애착관계가 일생을 두고 지속되고, 일단 형성된 애착관계의 질은 아동기와 청년기 적응 및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윤연기, 2010). 애착은 아동의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발달의 여러 측면에서 유용한 변인이 되어 삶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아동의 생후 최초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대상인 어머니는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타자로, 안정된 모애착이 형성되면 심리적 안정감과 영아기 이후의 사교성, 정서적 기질, 독립성, 협력, 신뢰 등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이지연, 백정빈, 2008).

부모애착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들을 보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존감이 높고 학교생활과 사회적응을 더 잘하며(윤정희, 2002), 부모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잘 된 아동은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문제를 덜 보이며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고(김선숙, 2007), 학교적응 유연성도 높았다고 밝혀졌다(박현선, 1998). 부모애착이 높은 아동이 공격성이 낮고 사회적 지지를 더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유병선, 2008),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긍정적인 사회적 기대를 하게 되고, 이러한 긍정적 기대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유도하며, 또래와 함께 있을 만하다는 기대를 갖도록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영, 나유미, 1998).

영아기에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면 유아기에는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하며 이것은 타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에 신뢰감을 갖게 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본이 된다(이숙희, 2006). 또한 학령기 이후 안정된 애착은 학업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의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고(정세화, 2003), 왕혜옥(2003)은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애착이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또래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에 대한 애착형성은 아동의 심리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안정된 애착형성은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하며, 자기가치와 자기효능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함으로써 학교생활의 적응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에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자기통제력

가. 자기통제력의 정의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과 성공적 학업성취, 정서, 도덕성 등을 비롯한 여러 인지적, 사회 정의적 발달에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자기통제력을 지적하고 있으며, 오늘날과 같은 성취지향적인 사회에서 아동이 미래의 성취를 위해 즉각적인 요구나 충동을 자제하는 자기통제는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지적 성취뿐 아니라 공격성, 정서, 도덕성 등을 비롯한 여러 정의적 특성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송명자, 1995).

자기통제(self-control)이라는 개념은 자신이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Kopp는 자기통제력을 환경의 요구에 따라 행동을 시작하고 멈출 수 있으며, 사회적·교육적 상황에서 언어적, 신체적 활동의 강도, 빈도와 지속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자신의 의도나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지연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른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한다고 하였다(이동홍, 2003 재인용). 또한, 자기통제능력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인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한다고 하였다.

김남성(1995)은 한 개인이 직접적인 외부의 억압이 없는 가운데 자신이 전에 행했던 부적절한 행동의 빈도를 줄이고 새로 선택한 유용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라 정의하였으며, 김현숙(1998)은 자기통제력을 목표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 이경님(2000)은 스스로 상황적인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미래에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관리, 통제하는 기술로서, 환경의 요구에 따라 행동을 시작하고 멈출 수 있으며, 사회적·교육적 상황에서 언어적, 신체적 활동의 강도, 빈도와 지속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나. 자기통제력의 하위요인

Gottfredson 과 Hirsch(1990)의 주장을 토대로 자기통제의 요소를 순간적인 욕구충족을 지연시키거나 통제하여 현재의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 단순한 과제에 관한 선호나 혹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제를 회피하려는 경향, 재미있는 일들을 지나치게 선호하고 스틸이나 모험을 추구하려는 경향, 단순한 과제의 선호가 복잡한 과제의 회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신적인 활동보다 신체적인 활동에 대한 선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보다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성향, 쉽게 화를 내는지 아니면 많은 좌절에 직면하더라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6가지 요인으로 보았다(이혜림, 2009 재인용).

송명자(1995)는 자기통제의 요소를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이란 아동이 바람직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대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고,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란 큰 보상을 얻기 위

해 일시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욕구를 억제하거나 행동을 통제하고 지연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란 성급한 감정, 정서, 행동, 판단, 선택 등을 자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이정란(2003)은 자기통제의 요소로 순응, 충동통제, 만족지연, 유혹저항, 정서조절, 주의조절 등을 들고 있다. 즉, 아동이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 중 가장 최초로 나타나는 것으로 외부의 통제에 의해 동기화되는 순응행동, 지시 또는 명령에 준해 행동을 중지하거나 억제하는 능력인 충동통제, 가치가 높은 지연된 결과를 얻기 위해 가치가 조금 낮지만 즉각적인 결과를 지연시켜야 하는 만족지연, 바람직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유혹저항, 목적성취를 위해 정서적 각성을 억제, 증강, 유지, 조정하는 정서조절과 주의조절로 보았다.

이경남(2000)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자기통제상황에 관한 진술문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자기통제 구성요인을 제시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려숙고, 과제인내, 유혹저항, 정서통제, 친구관련 통제, 교사관련 통제의 여섯 가지 요인을 자기통제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려숙고 : 자기통제의 인지적 요소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신중히 생각해서 행동하고 통제 상황에서 책략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과제인내 :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힘들거나 어렵더라도 인내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 3) 유혹저항: 바람직한 과업을 위해 일시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대상의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을 말한다.
- 4) 정서통제 : 상황에 따라 슬픔, 기쁨, 분노 등의 정서의 표출을 제지하는 능력이다.
- 5) 친구관련 통제 : 친구 간에 다투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위한 통제 요인을 말한다.
- 6) 교사관련 통제 : 학교에서나 수업시간에 교사가 보지 않더라도 지시나 규칙을 따르는가에 관한 요인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의 요소를 이경남(2000)이 제시한

요소에 근거하여 사려숙고, 과제인내, 유혹저항, 정서통제, 친구관련 통제, 교사관련 통제를 아동의 자기통제력의 하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다. 자기통제력의 이론적 관점

정신분석이론에서 자기통제력은 자아로부터의 통제를 의미한다. 자아는 현실을 정확히 지각하며,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행동을 지연시키려고 애쓴다. Freud는 자기통제력의 발달은 자아(ego)의 성장에 통해 일어나며 초자아(superego)의 발달에 의해 촉진된다고 설명한다(이동홍, 2003 재인용). Freud는 자아통제란 비교적 안정된 성격변인이며, 개인차적 변인으로 보고 개인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개체가 발달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환경의 경험을 들었다. 즉 자아통제의 발달은 자아가 자신의 행동과 도덕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기 위한 기준을 제공받을 수 있는 부모가치의 내면화와 이로 인한 초자아의 발달로 더욱 촉진되어진다는 것이며, 어떠한 내면화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른 성격발달의 안정된 요인이라 보는 것이다(이경남, 1995 재인용).

행동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자기통제는 일체의 내면의 속성을 배제하고 조건화의 원리에 입각한 행동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즉,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순간의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뜻하며, 행동수정가들은 자기통제를 의지력이라 부르며 보상과 벌을 통한 학습의 결과로, 행동뿐만 아니라 사고의 통제 역시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Shaffer, 1993; 오수남, 2012 재인용).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자기통제력은 사회적 행동, 외부적 억제에 대한 내면화라는 의미로 본다. 주로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옳고 그름에 대한 인지적 판단 능력의 발달 양상을 설명하면서 자기통제력의 결정인자는 인지적 판단능력이며, 인지적 발달 수준에 따라 자기통제된 행동의 동기가 변화한다고 설명한다(이동홍, 2003).

자기통제를 단일한 한 개인의 심리내적 특성으로 이해하는 정신분석접근과는

달리, 하나의 단순한 학습된 행동으로서 학습 과정을 강조하는 관점이 학습이론에서 출발하였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사회학습이론을 들 수 있다(이경님, 1995). 사회학습이론은 자기통제력이란 생래적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배워가면서 발달해 가는 능력으로서, 보상과 처벌의 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내면에 획득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자기통제력은 사회규범을 자신의 신념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아동이 어떤 상황에서 자기통제된 행동을 했을 때 타인에게 일관되게 보상을 받거나 타인이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강화 받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 아동은 그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추론하여 자기통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아동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며, 이런 과정을 거쳐 자기통제력을 높인다고 하였다. 즉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자기를 통제하여 나타낸 행동이 타인의 칭찬이나 큰 보상과 연관 될 때, 아동의 자기통제력이 발달되며, 아동의 삶에서 부모, 형제, 교사, 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의 자기통제된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자기 통제된 행동을 학습하게 되어 아동의 자기통제력이 발달된다는 것이다(이동홍, 2003).

행동의 지각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지적, 내재적 요소와 외부환경의 상호작용주의적 결정주의적 결정주의의 원칙을 강조한 Bandura(1978)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외적인 환경요인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개인의 내적 환경요인(인지)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았다. 또한 변화된 행동은 환경요인과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인지에 변화를 주며, 변화된 인지와 행동은 다시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이러한 상호작용론적 입장(interactionist position)에서 볼 때, 자기통제는 각 개인의 특수성과 외부조건, 상황적 배경이 강조되는 상황 특수성(situation-specific)이 강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경님, 1995 재인용).

자기통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와 같은 의미 있는 대상의 사랑이 중요한데, 부모와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나눈 아동은 부모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아동은 부모의 사랑을 잃지 않거나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에게 순응하고 자신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라.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아동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속하는 문화에서 요구하는 행동규범, 가치, 도덕 등을 획득하면서 적절한 자기통제력을 발달시킨다. 자기통제력은 4세경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자신의 욕구를 참고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면서 발달한다. 이렇게 형성된 자기통제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확연히 나타나게 되는데, 자신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배우는 시기인 학령기 때 더욱 발달하게 된다(Kendall & Wilcox, 1979; 이경남, 2001 재인용). 자기통제력은 학령기 동안 상당히 발달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자기통제력은 아동기를 거쳐 청년기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발달된다고 하였다(Berk, 2006; 송윤심, 2007 재인용).

강지훈, 박성연(2005)은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기능적 정서조절능력 및 역기능적 정서조절 능력이 학교적응의 모든 내용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정서를 잘 조절하는 아동일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우소연(2008)은 아동의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정적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아동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아(2009)는 남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교사와의 관계적응, 학교수업, 학교규칙준수적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배지연(2003)은 아동들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도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통제력은 아동기의 성공적인 학업성취 및 사회화의 적응지표(안미경, 1996)일뿐 아니라 청년기, 성인기의 적응과도 관련되므로 아동이 사회화 과정에서 다듬어 가야할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4. 부모애착,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오늘날과 같은 성취지향적인 사회에서는 현재의 즉각적인 욕구나 충동을 자제하고 성취를 위하여 인내하는 능력은 아동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시적인 충동과 만족을 자제하여 감정과 행동을 적절히 표출하는 방법을 배우고, 바람직한 결과나 목표를 위하여 인내하는 마음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은 최초의 교육자인 부모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과 성공적인 성취를 위해 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가정에서 배워야 한다.

자기통제력은 학업에서도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여 극복하느냐, 참지 못하고 포기하느냐가 성취를 좌우한다. 자기통제력은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시작된다. 어릴 때의 발달은 부모의 영향이 크게 때문에 부모와의 애착형성과 자기통제력은 관련이 있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자기통제력은 이들이 속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자에 의한 타율적 통제를 기초로 발달한다(Kopp, 1982; 송윤심, 2007 재인용)고 하였고, 아동기의 부모애착은 아동의 또래관계 및 학교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심리적 자원이 풍부하고, 융통성이 있고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으며(장휘숙, 1997), 이들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도움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Hirshci는 부모-자녀 애착이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키고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여 부모와 강한 사회적 유대를 형성시킨 아동은 사회에 나가서도 그들의 부모에게 좀 더 강한 심리 유대적 태도를 갖게 되고 그들은 이런 사랑, 존경, 애정과 같은 부모에 대한 심리적 유대로 인해 비행을 그만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김용환, 2011 재인용). 또한 Gottfredson은 불안정 애착이 자녀의 낮은 통제력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관심과 보호, 애정이 부족하여 아동의 행동에 정확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자기통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비행이나 일탈 등의 부적응 행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민수홍, 1996 재인용). 자기통제력이 높은 아동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충동적이 행동은

자제하고 사려 깊게 행동함으로써 높은 학업성취와 원만한 또래관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이경남, 2004),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동은 인지적 과제해결에 산만하여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교사 및 또래관계에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많은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희, 김경연, 1999). 고정자(2005)와 전숙영(2007)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문제행동이 높다고 하였으며, 김현숙(1998)도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낮은 학업성취와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를 보이며 사회적응능력 미숙과 문제해결능력의 부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동은 부모와 자녀간의 안정된 애착은 높은 자기통제력을 형성하고, 이는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교사 및 또래관계, 학업성취 등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아동의 자기통제력이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주요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초기발달에서 중요한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부모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학교생활적응에 또 다른 변인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자기통제력이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의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제주시에 소재한 2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6학년 4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393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척도를 빠뜨리거나 무작위 응답을 한 18부를 제외한 3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5, 6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아동기에서 초기청소년기로 접어들게 되는 시기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부모와 갈등이 서서히 증가하는 발달상의 변화를 맞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정의 중요한 인간관계인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04명	54.4%
	여	171명	45.6%
학년	5학년	121명	32.3%
	6학년	254명	67.7%
가족형태	양부모	307명	81.8%
	한부모(아버지)	10명	2.7%
	한부모(어머니)	35명	9.3%
	부모없음	1명	0.3%
	기타	22명	5.9%
전 체		375명	100%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204명(54.4%), 여학생 171명(45.6%)으로 성별의 비율은 비슷하였으며, 5학년 121명(32.3%), 6학년 254명(67.7%)으로 6학년의 비율이 더 많았다. 가족형태는 양부모형태 307명(81.8%), 한부모(아버지)형태 10명(2.7%), 한부모(어머니)형태 35명(9.3%), 부모없음 1명(0.3%), 기타 22명(5.9%)로 양부모형태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자기보고식으로, 부모애착 척도, 자기통제력 척도, 학교생활적응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모애착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10-20세 대상을 제작한 부모애착 정도를 수정한 개정본을 옥정(1998)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초등학교의 수준에 수정하여 사용한 윤소영(200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 같은 내용으로 각각 25문항이며 각 하위요인별 문항수는 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감 6문항이다. ‘신뢰감’은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털어놓고 얘기 할 수 있고 자신의 판단을 믿어주며, 부모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며, ‘의사소통’은 부모님이 내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시에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에 관해 묻는 문항이다. ‘소외감’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집이나 학교에서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좌절이나 침체 등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도구문항 응답형식은 Likert방식의 5점 척도로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되

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됨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중 소외감은 단독요인으로 사용 될 때에는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모애착으로 사용될 때에는 소외감영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결코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때때로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부에 대한 애착이 .933, 모에 대한 애착이 .924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와 문항구성은 <표 III-2>과 같다.

<표 III-2> 부모애착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부	모
신뢰감	10	2, (3), 4, 5, (9), 13, (17), 20, 22, 24	.882	.866
의사소통	9	1, (6), 7, 12, 15, 16, 19, 21, 25	.898	.884
소외감	6	(8), (10), (11), (14), (18), (23)	.655	.636
부모애착	25	1-25	.933	.924

* ()는 역 채점 문항 표시임

나. 자기통제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통제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경님(2000)이 개발한 학령기 아동용 자기통제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사려숙고, 과제인내, 유혹저항, 정서통제, 친구관련 통제, 교사관련 통제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43문항이며 각 하위요인별 문항수는 사려숙고 12문항, 과제인내 9문항, 유혹저항 7문항, 정서통제 6문항, 친구관련 통제 4문항, 교사관련 통제 5문항이다.

도구문항 응답형식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되

며, 채점방식은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14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와 문항구성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자기통제력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사려숙고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872
과제인내	9	(13), (14), (15), (16), (17), (18), (19), (20), (21)	.828
유혹저항	7	(22), (23), (24), (25), (26), (27), (28)	.837
정서통제	6	29, 30, 31, 32, 33, 34	.811
친구관련통제	4	(35), (36), (37), (38)	.836
교사관련통제	5	(39), (40), (41), 42, (43)	.695
자기통제력	43	1-43	.914

* ()는 역 채점 문항 표시임

다. 학교생활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용래(2000)가 제작한 것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맞게 이점순(2006)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활동적응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0문항이며, 각 하위요인별 문항수는 모두 6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문항 응답형식은 Likert식의 5점 척도로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50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와 문항구성은 <표 III-4>과 같다.

<표 III-4>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학교환경적응	6	5, 7, 9, 10, 11, 12	.853
학교교사적응	6	4, 19, 20, 21, 22, 23	.883
학교수업적응	6	24, 25, 26, 28, 29, 30	.838
학교친구적응	6	13, 14, 15, 16, 17, 18	.829
학교활동적응	6	1, 2, 3, 6, 8, 27	.818
학교생활적응	30	1-30	.950

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통한 양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제주 시내 2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학급의 교사에게 실시 요령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실시하였다.

2013년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420부를 배부하여 393부 회수하였으며, 그 중 무응답을 포함한 불성실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375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각 검사의 채점기준에 근거하여 점수화한 후 통계적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부모애착,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및 전체점수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SD)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아동의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아동의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매개효과의 유의성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가. 기술통계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애착,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별 및 전체 하위요인별 기술통계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가족형태에 따른 기술통계 및 전체기술통계

구 분	양부모		한부모 (아버지)		한부모 (어머니)		부모없음		기타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부신뢰감	3.83	0.75	3.56	0.97	3.75	0.95	4.50	.00	3.51	0.90	3.80	0.79
부의사소통	3.45	0.89	3.34	0.92	3.51	0.96	4.33	.00	3.39	0.92	3.45	0.89
부소외감	2.31	0.70	2.45	1.09	2.36	0.60	1.00	.00	2.49	0.65	2.33	0.70
부애착(전체)	3.66	0.70	3.47	0.85	3.64	0.79	4.56	.00	3.47	0.78	3.64	0.72
모신뢰감	4.06	0.71	3.95	0.76	4.17	0.67	2.20	.00	3.58	1.01	4.03	0.74
모의사소통	3.85	0.80	3.84	0.75	3.97	0.80	1.44	.00	3.40	1.13	3.83	0.83
모소외감	2.24	0.67	2.13	0.83	2.38	0.66	1.00	.00	2.81	0.88	2.28	0.70
모애착(전체)	3.91	0.64	3.90	0.66	3.97	0.64	2.60	.00	3.42	0.97	3.89	0.67
사려숙고	3.57	0.70	3.16	0.95	3.56	0.65	3.58	.00	3.51	0.83	3.56	0.71
과제인내	3.23	0.79	3.34	0.58	3.15	0.69	3.00	.00	2.97	1.04	3.21	0.79
유혹저항	3.50	0.96	3.16	0.97	3.56	0.79	3.57	.00	3.24	0.95	3.48	0.94
정서통제	3.37	0.84	2.82	1.14	3.22	0.66	3.33	.00	3.66	0.65	3.36	0.83
친구관련 통제	3.29	0.98	3.43	0.73	3.19	0.81	4.00	.00	2.92	1.00	3.27	0.96
교사관련 통제	3.38	0.81	3.20	0.64	3.28	0.73	3.40	.00	3.18	1.13	3.35	0.82
자기통제력(전체)	3.40	0.55	3.19	0.29	3.35	0.48	3.42	.00	3.26	0.75	3.38	0.55
학교환경적응	3.31	0.82	3.44	1.08	3.33	0.77	3.33	.00	3.20	1.00	3.31	0.83
학교교사적응	3.50	0.91	3.50	0.79	3.55	0.90	3.17	.00	3.63	0.78	3.51	0.89
학교수업적응	3.19	0.87	3.30	0.60	3.20	0.76	3.33	.00	3.08	0.94	3.19	0.86
학교친구적응	3.38	0.80	3.44	0.56	3.37	0.69	3.33	.00	3.42	0.88	3.38	0.79
학교활동적응	3.41	0.76	3.22	0.83	3.17	0.65	3.00	.00	3.36	0.92	3.38	0.76
학교생활적응(전체)	3.36	0.70	3.38	0.65	3.32	0.63	3.23	.00	3.34	0.78	3.35	0.69

나. 상관관계

아동의 부모애착,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2>과 같다.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계수는 부애착 .365, 모애착 .334으로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_s < .01$). 부모애착의 하위요인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계수는 부신뢰감 .334, 부의사소통 .418, 모신뢰감 .323, 모의사소통 .384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p_s < .01$), 부소외감과는 -.140으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p < .01$). 따라서 부, 모 신뢰감,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 높은 반면에 부소외감이 높으면 학교생활적응은 낮아진다.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계수는 .590으로 나타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자기통제력의 하위요인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계수는 사려숙고 .671, 과제인내 .367, 유혹저항 .325, 정서통제 .266, 친구관련 통제 .214, 교사관련 통제 .415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p_s < .01$).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 높아진다.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 간의 상관계수는 부애착 .385, 모애착 .401으로 나타나 ($p_s < .01$),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의 하위요인과 자기통제력의 상관계수는 부신뢰감 .354, 부의사소통 .356, 모신뢰감 .368, 모의사소통 .385($p_s < .01$)으로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부소외감 -.306, 모소외감 -.274($p_s < .01$)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부, 모 신뢰감,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도 높은 반면에 부, 모 소외감이 높으면 자기통제력은 낮아진다.

<표 IV-2> 부모애착,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N=37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부신뢰감	1																					
2.부의사소통	.837**	1																				
3.부소외감	-.617**	-.496**	1																			
4.부애착(전체)	.954**	.927**	-.726**	1																		
5.모신뢰감	.540**	.498**	-.400**	.552**	1																	
6.모의사소통	.462**	.519**	-.276**	.498**	.844**	1																
7.모소외감	-.313**	-.258**	.560**	-.382**	-.550**	-.442**	1															
8.모애착(전체)	.521**	.514**	-.438**	.559**	.951**	.925**	-.687**	1														
9.사려숙고	.367**	.407**	-.211**	.391**	.354**	.426**	-.116*	.373**	1													
10.과제인내	.236**	.236**	-.289**	.276**	.277**	.272**	-.286**	.314**	.418**	1												
11.유혹저항	.208**	.201**	-.291**	.249**	.290**	.248**	-.300**	.311**	.304**	.667**	1											
12.정서통제	.175**	.170**	.005	.151**	.056	.103*	.101	.045	.432**	.080	.029	1										
13.친구관련통제	.199**	.160**	-.156**	.195**	.185**	.170**	-.205**	.208**	.199**	.453**	.442**	.036	1									
14.교사관련통제	.177**	.155**	-.207**	.195**	.234**	.226**	-.246**	.264**	.281**	.496**	.558**	-.066	.527**	1								
15.자기통제력 (전체)	.354**	.356**	-.306**	.385**	.368**	.385**	-.274**	.401**	.713**	.821**	.770**	.369**	.594*	.655**	1							
16.환경적응	.281**	.341**	-.134**	.307**	.263**	.301**	-.074	.267**	.528**	.282**	.230**	.225**	.140**	.326**	.452**	1						
17.교사적응	.321**	.379**	-.133*	.340**	.325**	.356**	-.094	.324**	.504**	.276**	.260**	.189**	.168**	.324**	.450**	.610**	1					
18.수업적응	.279**	.376**	-.105*	.314**	.276**	.349**	-.099	.301**	.563**	.327**	.283**	.121*	.223**	.417**	.505**	.609**	.693**	1				
19.친구적응	.276**	.340**	-.113*	.299**	.212**	.270**	-.024	.218**	.598**	.285**	.227**	.338**	.185**	.205**	.482**	.675**	.554**	.528**	1			
20.활동적응	.231**	.302**	-.103*	.260**	.269**	.323**	-.064	.277**	.625**	.372**	.366**	.259**	.179**	.462**	.587**	.642**	.639**	.697**	.571**	1		
21.학교생활적응 (전체)	.334**	.418**	-.140**	.365**	.323**	.384**	-.087	.334**	.671**	.367**	.325**	.266**	.214**	.415**	.590**	.845**	.846**	.849**	.791**	.844**	1	

* $p < .05$, ** $p < .01$

2.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의 하위요인인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이 학교생활적응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애착의 다중회귀분석결과

(N=375)

예측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 ²	F	공선성통계량	
	B	SE	β				공차한계	VIF
(상수)	1.342	.352		3.815				
부신뢰감	-.024	.085	-.027	-.283			.224	4.459
부의사소통	.264	.069	.342	3.836***			.266	3.761
부소외감	.037	.068	.037	.542	.225	17.761***	.445	2.248
모신뢰감	.019	.091	.021	.212			.221	4.526
모의사소통	.212	.076	.255	2.782**			.251	3.980
모소외감	.094	.063	.096	1.505			.517	1.935

** $p < .01$, *** $p < .001$

<표 IV-3>에서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의사소통($\beta = .342$)과 모의사소통($\beta = .255$)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p < .01$), 학교생활적응에 부모애착의 전체설명력은 22.5%를 차지하였다.($F = 17.761$, $p < .001$).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진다. 분석결과는 공차한계값이 0.1 이상이고 VIF 값이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하위요인인 사려숙고, 과제인내, 유혹저항, 정서통제, 친구관련 통제, 교사관련 통제가 학교생활적응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과 같다.

<표 IV-4>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다중회귀분석결과

(N=375)

예측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 ²	F	공선성통계량	
	B	SE	β				공차한계	VIF
(상수)	.544	.167		3.261				
사려숙고	.574	.044	.587	12.911***			.645	1.549
과제인내	-.005	.046	-.006	-.115			.474	2.111
유혹저항	.017	.039	.023	.435	.509	.63.533***	.484	2.068
정서통제	.027	.035	.033	.783			.771	1.297
친구관련 통제	-.039	.032	-.055	-1.218			.665	1.504
교사관련 통제	.228	.041	.271	5.544***			.557	1.796

*** $p < .001$

<표 IV-4>에서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려숙고($\beta=.587$)와 교사관련 통제($\beta=.271$)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학교생활적응에 자기통제력의 전체설명력은 50.9%를 차지하였다($F = 63.533, p < .001$). 따라서 사려숙고가 높고 교사관련 통제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진다. 분석결과는 공차한계값이 0.1 이상이고 VIF 값이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부모애착,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보고, 자기통제력이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걸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5>과 같다.

<표 IV-5>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N=375)

단계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t	R ²	F	Sobel test(z)
		B	SE	β				
독립	(상수)	1.870	.159		11.731			
->	부모애착					.197	91.724***	
매개	->자기통제력	.400	.042	.444	9.577***			
독립	(상수)	1.680	.204		8.255			
->	부모애착					.157	69.485***	
종속	->학교생활적응	.445	.053	.396	8.336***			7.272***
독립,	(상수)	.480	.206		2.327			
매개	부모애착							
->	->학교생활적응	.188	.052	.167	3.644***	.370	109.303***	
종속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642	.057	.515	11.219***			
총효과:		.396	직접효과:	.167	간접효과:	.229		

*** $p < .001$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에 대해 <표 IV-5>에서 살펴보면 먼저, 부모애착은 자기통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beta = .444$, $p < .001$), 자기통제력에 대한 부모애착의 설명력은 총 분산의 19.7%이다 ($F = 91.724$, $p < .001$). 또한 부모애착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beta = .396$, $p < .001$),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애착의 설명력은 총분산의 15.7%이다 ($F = 69.485$, $p < .001$). 마지막으로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을 동시에 고려할 때, 전체 설명력은 37.0%이며 ($F = 109.303$, $p < .001$),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여 ($\beta = .167$, $p < .001$), 자기통제력이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애착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직접효과는 .167(42.1%), 간접효과는 .229(57.9%)이다.

보다 정확히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 = 7.272$, $p < .001$).

따라서 부모애착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력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통제력의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와 영향을 살펴보고, 자기통제력이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서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내에서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 부모교육이나 학교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잘 이루어질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부모애착의 하위요인인 신뢰감, 의사소통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외감은 부적상관관계를 보여 부모와의 애착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존감이 높고 학교생활과 사회적응을 잘한다(윤정희, 2002)는 연구와도 일치하며, 부모애착이 높은 아동이 공격성이 낮고 사회적 지지를 더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유병선, 2008), 학령기 이후 안정된 애착은 학업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의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정세화, 2003)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 초기 애착관계에서 형성된 Bowlby의 내적작동모델이 성장 후에도 타인들과 관계 맺는 원형으로 작용한다 하였듯이, 안정된 애착 수준은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관계 형성을 해야 하는 초등학교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중요한 예언변인임을 알 수 있다.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 간에 정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우소연(2008)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자기통제력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의미 있게 예언해주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했으며, 아동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도 높다(배지연, 2003)는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자기통제력의 향상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준다(류윤식, 2006)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이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애착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애착의 하위요인 중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 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이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조미연, 2012; 박유니, 2011; 이양숙, 2008)는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셋째, 자기통제력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통제력의 하위요인 중 사려숙고, 교사관련 통제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려숙고, 교사관련 통제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상황을 검토하고 생각하여 행동하는 능력인 사려숙고가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주어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된다(전대수, 2012)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교사가 보지 않더라도 지시나 규칙을 잘 따르는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을 더 잘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넷째,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 자기통제력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의 결과,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총 효과에서 자기통제력을 통한 간접효과가 직접효과에 비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부모애착은 그 자체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기보다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어, 자기통제

력이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매개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은 긴밀한 관계를 나타냈다.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통제력이 높아야 하며, 이러한 자기통제력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형성을 통해 형성된다. 이를 통해 형성된 자기통제력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와 신뢰감형성이 잘되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며, 부모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아동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으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신중히 생각해서 행동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힘들거나 어렵더라도 인내하여 목표를 달성하며,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이 강하며, 정서의 표출을 제지하는 능력이 있고,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위한 통제요인과 교사가 보지 않더라도 지시나 규칙을 잘 따르는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을 더 잘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아동과 애착을 형성함에 있어 그 안에서 자기통제력이 발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 소재 2개 초등학교 5, 6 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별로 선정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들의 측정방법에 관련된 제한점이 있다. 모든 연구 자료가 자기보고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들이 문항 등을 상세히 읽지 않고 불성실하게 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 친구, 부모들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 외에 다른 다양한 예언변인에 대한 연구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하여 좀 더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아동의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상담에 큰 도움이 되는 연구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아동 개인적 특성인 자기통제력이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서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선정한 독립변인인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애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애착, 자기통제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강지훈, 박성연(2005). 남녀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김남성(1995). **교육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동현(2006). 아동의 낙관성과 학습동기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김선숙(2007).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2, 65-95.
- 김선희, 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155-166.
- 김아영(2002). 학업동기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5(1), 157-184.
- 김영화(2011). 초등학생의 부모 애착과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김영희(2007).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과 양성평등의식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김용래(2000). 학교학습동기척도 A와 학교적응척도 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 분석. **교육연구논총**, 17, 3-39.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 김용환(201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애착과 자기통제력, 주관적 삶 만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 김정화, 김언주(2006). 아동이 지각한 교사신뢰 및 학습동기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아동교육**, 15(2), 117-129.
- 김지혜(2006).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격유형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학업적 실패

- 내성 및 학교적응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현숙(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류윤식(2006). 해결중심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이 일반계 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민수홍(1996). 초등학교 학생의 자기통제력과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27, 91-124.
- 박경희(2005). 부와 모에 대한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박유니(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및 분노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박은영(2011).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애착, 또래와의 애착, 직업의 성숙도, 소득수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배승희(1998). 초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대인관계 욕구와 학교생활적응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배지연(2003). 초등학교 학생의 학원과외학습 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백경애(1997).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백미애(2002). 부모의 정서표현에 따른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과 감정조절능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백정빈(2008). 모애착과 초등학교 학생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검증.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선상화(2009). 부모 애착 및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성인 애착과의 관계성.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손은영(2003).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

- 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손현숙(2008).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교우관계문제**.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 송명자(1995). **‘자기훈육과 자기통제력의 배양’**, 21세기와 가정교육(제3회부모교육 학술세미나), 청소년대화의 광장.
- 송윤심(2007).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학령기아동의 자기통제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안미경(1996).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안영복(1984). **적응 및 부적응 행위의 특성과 관계 변수**.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어주경, 정문자(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2), 21-40.
- 오수남(2012).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통제력 및 정서조절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옥 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 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왕혜옥(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우소연(2008). **학령 후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과 유머감각의 중재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유병선(2008). **부모애착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윤소영(2001).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윤연기(2010). **초등학생의 부모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력과 또래유능성의 매개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윤영란(2005).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자녀통제 및 유아의 자기통제**.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윤정희(200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애착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경님(1995). 아동의 자기통제력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동아교육논총**, 21, 103-124.
- 이경님(2000). 아동의 자기통제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7(1), 99-120.
- 이경님(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 변인 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2), 46-68.
- 이경님(200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활연구논문집**, 11, 197-214. 동아대학교.
- 이경님(2004). 아동의 개인 및 가족변인과 교실의 심리사회적 환경변인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13(6), 833-845.
- 이규미(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동홍(2003). 아동의 자기통제력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이미라(2000).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이미라(2007). 사회적 기술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이미현(200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이수경(2004). 학교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수하(2005). 부모 애착 및 또래 애착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숙희(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양숙(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기효능감 및 학

- 교생활적응과의 분석.**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 이영, 나유미(1998). 유아의 애착 및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19-32
- 이옥형(1999). **아동발달**. 서울: 집문당.
- 이점순(2006). **담임교사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 이정윤, 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16(2), 261-276.
- 이지연, 백정빈(2008).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교육논단**, 8(1), 57-78.
- 이춘숙(2006). **청소년의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이현림, 천미숙(200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511-541.
- 이혜림(2009).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통제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장휘숙(1997). 아동기 이후의 애착에 관한 최근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 1997년도 연차학술대회 발표 학술논문집**. 439-454.
- 전대수(201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대인관계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전숙영(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5(6), 101-111.
- 정세화(2003). **애착안정성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학교적응.**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정옥분(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조미연(2012).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아동의 대인관계 성향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조수현(2012). **초등학생의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조유진, 한지숙(2010).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4(4), 541-562
- 진미화(2007).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 최미경(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아의 경험: 단기 종단적 연구와 심층면접**.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상진, 최순영 역(1989). **인간의 사회적 발달**. 서울: 성원사.
- 최순영, 김수정(2001). **인간의 사회적 성격적 발달**. 서울: 학지사.
- 최승연(2007).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자기조절학습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최영아(2009). **청소년의 심리적 반발심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황경미(1998).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Ainsworth, M. S.(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lationships to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ndura, A.(1978). The self system in reciprocal determinism. *American Psychologist*, 33, 344-358.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rk, L. E.(2006). *Child development(7th ed.)*. New York : Allyn & Bacon.

- Bowlby, J.(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in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during the preschool years*(pp. 272-308).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ockenberg, S. C.(1985). Toddlers' reactions to maternal anger. *Merrill-Palmer Quarterly*, 31, 361-373.
- Erikson, E.(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ottfredson, M. R.,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University Press.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lmes, J.(1992).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New York: Routledge.
- Kendall, P. C., & Wilcox, L. E.(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020-1029.
- Kopp, C. B.(1982). Antecedent of self-regulation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Papalia, D. E., & Olds, S. W.(1979). *A child's world: Infancy through adolescence*. New York: McGraw-Hill.
- Shaffer, D. R.(1993).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3rd ed.)*. Belmont, CA: Brooks/cole.
- Sobel, M. E.(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Abstract>

The Predictive Effect of Child-Parent Attachment and
Self-control on School Adjustment
with Primary school children

Kim, Su Seon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Jae Hong

This study aims to the relationship and predictive effect between child-parent attachment, self-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 and by clarifying that self-control can act as a mediator factor in relation to child-parent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it trie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parent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Through this study, its purpose is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 that can be used in actual school or parents education situations, and study the ways to increase the level of school adjustment at schools and homes.

The subjects for inquiry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Study Problem 1: Is there correlation between the three factors -

child-parent attachment, self-control , and school adjustment?

Study Problem 2: What is the level of predictive effect of child-parent attachment, has on school adjustment?

Study Problem 3: What is the level of predictive effect of self-control on school adjustment?

Study Problem 4: Does self-control have mediator effect in relation to child-parent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In this study, in order to calculate the level of a child-parent attachment, a tool revised by Soyoung Yoon (2001) to target elementary students, which was made by Ok Jung (1998) by adapting a modified version of the level of parents attachment Armsden and Greenberg(1987) created targeting 10-20 years olds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Revised version : IPPA-R) was used; and self-control level standard for school children that is created by Kyungnim Lee (2000), and school adjustment standard modified Yongrae Kim's creation (2006) by Jumsoon Lee (2006) to fit elementary students were used.

In order to solve such study problems, surveys have been conducted targeting 375 fifth and sixth grade students from A, B elementary schools in Jeju City, and the material analysis was done using SPSS 18.0 program to conduc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correlation of major factors; and in order to test the mediator effect of child-parent attachment, self-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summary of the findings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relative analysis of child-parent attachment, self-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there was a meaningful relationship between , child-parent attachment, self-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Secondly, child-parent attachment, has a meaningful effect on school adjustment, and it has been found that communication, which is one of sub-factors of child-parent attachment, has a static effect on school adjustment, one can find that the better the communication with parents is, the better a child school adjustment.

Thirdly, self-control has a meaningful effect on school adjustment, and thoughtful consideration and teacher-related control that is a sub-factor of self-control has been found to have a static effect on school adjustment, thus, one can find that the higher consideration and teacher-related control is, the higher school adjustment becomes.

Fourth, after studying the mediated effect of self-control with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parent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self-control between child-parent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was found to have partial mediated effec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child-parent attachment, not only directly effect school adjustment, but also has indirect effect via impulsiveness which is a parameter.

Based on the results, child-parent attachment, and self-control have a relationship with school adjustment, having an important effect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one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hild-parent attachment, and must aim for increasing child-parent attachment, and self-control in developing education, therapies and programs.

< 부 록 >

< 설 문 지 >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부모님과 친구,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과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을 알아봄으로써 여러분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연구 자료로 사용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특정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의 생각과 행동에 비추어 여러분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곳에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답이 연구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대해 빠짐 없이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자료는 학교성적이나 평가와는 상관이 없으며 연구자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으므로 비밀이 지켜집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1월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 김 수 선

※ 다음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사항에 √ 표시를 하거나, 답을 해 주세요.

1. 성별: 남 여

2. 학년: ① 5학년 ② 6학년

13	우리 아버지는 나의 결정을 신뢰한다.(믿는다)	1	2	3	4	5
14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귀찮게 하지 않는다.	1	2	3	4	5
15	우리 아버지는 내가 나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1	2	3	4	5
16	나는 아버지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1	2	3	4	5
17	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난다.	1	2	3	4	5
18	나는 아버지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1	2	3	4	5
19	우리 아버지는 내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1	2	3	4	5
20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해해 주신다.	1	2	3	4	5
21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	2	3	4	5
22	나는 우리 아버지를 신뢰한다.(믿는다)	1	2	3	4	5
23	우리 아버지는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1	2	3	4	5
24	내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나는 아버지께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5
25	만약 아버지께서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1	2	3	4	5

※다음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또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돌봐주신 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아버지, 어머니에 각각에 대한 현재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결코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리 어머니는 내 감정을 받아주신다.	1	2	3	4	5
2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다른 분이 우리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1	2	3	4	5
4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1	2	3	4	5
5	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어머니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1	2	3	4	5

6	어머니에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리신다.	1	2	3	4	5
8	어머니와 함께 나의 문제를 의논할 때 나는 수치스럽고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우리 어머니는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신다.	1	2	3	4	5
10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1	2	3	4	5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속상해 한다.	1	2	3	4	5
12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생각해 보신다.	1	2	3	4	5
13	우리 어머니는 나의 결정을 신뢰한다.(믿는다)	1	2	3	4	5
14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귀찮게 하지 않는다.	1	2	3	4	5
15	우리 어머니는 내가 나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1	2	3	4	5
16	나는 어머니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1	2	3	4	5
17	나는 어머니에게 화가 난다.	1	2	3	4	5
18	나는 어머니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1	2	3	4	5
19	우리 어머니는 내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주신다.	1	2	3	4	5
20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 주신다.	1	2	3	4	5
21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	2	3	4	5
22	나는 우리 어머니를 신뢰한다.(믿는다)	1	2	3	4	5
23	우리 어머니는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1	2	3	4	5
24	내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나는 어머니께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5
25	만약 어머니께서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1	2	3	4	5

□ 자기통제력 척도

※다음은 여러분 자신의 평소 생각과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모습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는 곰곰이 생각을 하여 결정한다.	1	2	3	4	5
2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는 하고 나서의 이로운 점들을 생각하고 해낸다.	1	2	3	4	5
3	시험공부가 하기 싫을 때는 시험을 잘 쳤을 때의 좋은 점을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한다.	1	2	3	4	5
4	숙제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생각을 먼저 한다.	1	2	3	4	5
5	하고 싶은 일이라도 친구에게 피해가 되면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물건을 살 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산다.	1	2	3	4	5
7	친구들과 토론할 때 다른 친구의 말에 주의해서 귀 기울인다.	1	2	3	4	5
8	발표를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1	2	3	4	5
9	친구를 사귀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본다.	1	2	3	4	5
10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일의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해 나간다.	1	2	3	4	5
11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 대하여 여러모로 깊이 생각한다.	1	2	3	4	5
12	지금 갖고 싶은 물건을 사고 싶어도 돈을 모았을 때의 기쁨을 생각하고 참는다.	1	2	3	4	5
13	꼭 해야 할 일이라도 지루하고 짜증이 나면 그 일을 끝까지 못한다.	1	2	3	4	5
14	용돈을 받으면 계획 없이 쓰고 싶은 대로 쓴다.	1	2	3	4	5
15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기 싫으면 그 일을 미룬다.	1	2	3	4	5
16	시험을 잘 보려고 세웠던 계획을 잘 실천하지 못한다.	1	2	3	4	5
17	지금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잠이 오면 끝까지 공부하지 못한다.	1	2	3	4	5
18	꼭 읽어야 할 책이 두껍고 재미가 없으면 끝까지 읽지 않는다.	1	2	3	4	5
19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더라도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1	2	3	4	5
20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만 곧 포기한다.	1	2	3	4	5

21	공부하다가 지루하면 그만둔다.	1	2	3	4	5
22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놀러가고 싶으면 놀러 나간다.	1	2	3	4	5
23	지금 숙제를 해야 하는데 TV에 재미있는 프로그램 나오면 TV를 먼저 본다.	1	2	3	4	5
24	오락실이나 PC방에 가고 싶을 때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몰래 간다.	1	2	3	4	5
25	보고 싶은 TV프로그를 못 보게 하실 때 부모님 몰래 본다.	1	2	3	4	5
26	지금 숙제해야 하는데 컴퓨터 게임이 하고 싶으면 게임을 먼저 한다.	1	2	3	4	5
27	지금 숙제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 것이 생각나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한다.	1	2	3	4	5
28	지금 빨리 집에 가야 하는데 친구가 놀자고 하면 친구와 논다.	1	2	3	4	5
29	나는 기쁜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기쁨을 참는다.	1	2	3	4	5
30	슬픈 일이 있어도 주위를 생각해서 슬픔을 참는다.	1	2	3	4	5
31	시험을 잘 봤을 때 친구를 생각해서 마음으로만 기뻐한다.	1	2	3	4	5
32	나 혼자만 칭찬 받았을 때 친구를 생각해서 마음으로만 기뻐한다.	1	2	3	4	5
33	나에게만 기쁜 일이 있을 때 친구를 생각해서 마음으로만 기뻐한다.	1	2	3	4	5
34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참는다.	1	2	3	4	5
35	친구가 시비걸 때, 내가 먼저 참기보다는 같이 시비 걸고 싸우게 된다.	1	2	3	4	5
36	친구가 귀찮게 할 때, 내가 먼저 참기보다는 화를 내며 싸우게 된다.	1	2	3	4	5
37	친구들에게 양보해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양보하지 않는다.	1	2	3	4	5
38	친구가 놀릴 때, 내가 먼저 참기보다는 덩달아 놀리며 싸우게 된다.	1	2	3	4	5
39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보시지 않으면 장난을 친다.	1	2	3	4	5
40	배가 매우 고프를 때는 참지 못하여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1	2	3	4	5
41	복도에서 선생님이 보시지 않으면 뛰어 다닌다.	1	2	3	4	5
42	수업시간에 지루하더라도 선생님 말씀을 끝까지 듣는다.	1	2	3	4	5
43	선생님이 보시지 않으면 청소나 당번 활동을 잘 하지 않는다.	1	2	3	4	5

□ 학교생활적응 척도

※여러분이 학교생활에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표를 해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우리 학교의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학교에 있는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 쓴다.	1	2	3	4	5
4	나는 학교에서 나에게 맡겨지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1	2	3	4	5
5	나는 학교생활이 즐겁고 재미있다.	1	2	3	4	5
6	나는 학교에 필요한 준비물을 반드시 준비해간다.	1	2	3	4	5
7	나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학교에서 알리는 안내방송에 주의를 기울인다.	1	2	3	4	5
9	나는 집에서 학교에 오는 동안의 주변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10	나는 우리 학교 환경을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1	2	3	4	5
11	우리 학교 환경은 나의 기분을 안정되게 해준다.	1	2	3	4	5
12	나는 학교에 가면 '공부하는 환경'이라서 마음이 차분해진다.	1	2	3	4	5
13	나는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든 친절하게 대한다.	1	2	3	4	5
14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이해 해주는 친구들이 많다.	1	2	3	4	5
15	나는 우리 반 친구들 중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가 있으면 위로하고 도와준다.	1	2	3	4	5
16	나는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었을 때 내가 먼저 사과를 한다.	1	2	3	4	5
17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을 믿고 의지한다.	1	2	3	4	5
18	나는 고민이 생기면 학교 친구와 먼저 의논한다.	1	2	3	4	5
19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편안하게 이야기 한다.	1	2	3	4	5
20	나는 우리 선생님을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한다.	1	2	3	4	5
21	우리 선생님은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신다.	1	2	3	4	5
22	나는 우리 선생님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1	2	3	4	5

23	나는 열심히 지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께 감사하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학교 수업 시간 중에는 딴 짓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25	나는 학교 수업시간 중 선생님의 질문에 편안하게 대답한다.	1	2	3	4	5
26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하고 지나간다.	1	2	3	4	5
27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반드시 준비한다.	1	2	3	4	5
28	나는 어느 교과목의 수업 시간에도 마음속에 부담을 갖지 않는다.	1	2	3	4	5
29	나는 매일 연습과 복습을 한다.	1	2	3	4	5
30	나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시간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감사의 글

논문을 완성하고 나서 감사의 글을 쓰는 이 순간 지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보냈던 대학원 생활이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은 저에게 치열했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도전과 용기와 인내를 경험하고 오히려 감사함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대학원 과정 동안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 과정 동안 좋은 말씀으로 큰 배움을 주시고, 부족한 제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도록 가르쳐주신 송재홍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항상 격려해주시고, 세심하고 따뜻하게 지도해주신 김양순 교수님, 김종우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옆에서 믿어주고, 기도로 지켜주는 사랑하는 가족들, 뒤에서 항상 지지해주시는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 그리고 대학원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응원을 해주신 원장님과 요양원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목표에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대학원을 입학하면서 처음 가졌던 마음을 생각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도 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완성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는 것이 목표였던 시간은 이제 뒤로하고 대학원 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세상에 작은 빛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8월 김 수 선

